

< 성경칼럼 : 요한복음 열 아홉번째 >

요한복음 18 장에는 예수님의 제자이던 베드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한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유명한 사건을 모를리가 있을까? 이 사건을 유심히 읽다 보면 내 마음은 항상 불편해진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에서 몰래 감추어둔 나의 모습도 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좀더 깊이 이 사건을 들여다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3 번이나 부인한 사건 이전에 (18:15-27) 예수님께서 잡혀 가시는 상황에서 똑같이 3 번이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장면을 기록한 것을 알수있다. (18:1-14) 왜 이런 사실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발생한 것일까? 정말 우연일까? 필자는 우연히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세번에 걸쳐 '내가 그니라' (18:5,6,8)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반면에 베드로는 세번에 걸쳐서 아주 비겁하게 '나는 아니라'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부인했다. (18:17,25,27) 모두 다섯 글자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인정하는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예수님의 헌신적 결단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안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몰라 두려워하며 부인했다. 아이러니컬 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온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스스로 부인 했다는 것이다. 오

늘날도 이런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난다면 믿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실재로 그런 삶을 부인하고 있다면 베드로의 상황과 다르게 무엇일까? 똑같이 '5 글자' 속에 감추어진 진실.. 이런 숨겨진 극적인 대조를 글체로 표현한 요한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볼 수 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 준다. 어찌 인간의 문제가 이것 하나뿐이겠는가마는 필자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려하고, 또한 알고 있다고 자신한다는 것이 문제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의 자식인지를 정확히 모르면서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정하는 것과도 같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

아주 오랜동안 벗어 날 수 없었던 기독교의 생각의 틀은..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수 있다는 것’ 이었다. 그 규정된 틀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알기 위해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를 간절히 찾아왔다. 그러나 정작 찾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이것은 아주 복음적이며 귀중한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입증되 될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 할수 있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앎’ 이 되는 것일까? 이보다 더 이기적인 것이 있을까 싶다.

좀 달리 생각해 보자! 오늘날 세상속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동전의 한쪽면만 알고 다른면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 가는 사람이 많다. 또한 구원을 알게 된 후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다.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수 있다는 바램을 가지고 시작 했지만.. 그 바램은 자신이 '죄인' 이라는 동전 한쪽면의 사실로 규정되 버리고 만다. 그것이 기독교가 주도 면밀히 가르쳐 온 것이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죄인' 그 이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며 '구원을 받았다' 는 사실 그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안에서 '의인' 이다라는 다른 한쪽면도 부각 되어야한다. 이것은 사실상 더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는 뜻이된다. 기독교인의 가장 모순된 것은 '죄인' 인줄 알면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의인' 인줄 알면서도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의인' 이면서도 의인처럼 살지 못할때 그 자아에 깊은 상처가 새겨진다. 그 상처가 깊어 질수록 '죄인' 에 대한 인식은 그 상처난 자아안에서 더 강해져 간다.

당신은 내가 정말 누구인지 물어 보았는가? 베드로 당시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듯이 세상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 당신은 '죄인' 인가? 혹은 '의인' 인가? 어느쪽인가? 아니면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일까? 가장 완벽한 답일것 같지만 가장 꽤많은 얽박한 답변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라고 했다. (고후 5:17) 그렇다면 이제는 죄인처럼 살수 없는 것 아닐까? 어찌 죄인이면서 또 의인이 될수 있을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했을때 그 의미는 무엇이였을까? '죄인' 이 아니다라는 뜻이 었을까? 아니면 '의인' 이 될수 없다는 뜻이 었을까?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베드로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아니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다 알면서도 단지 목숨이 두려워서였을까?

이제는 각자가 자신에게 물어 보아야 할때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는 아니다' 라고 해야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로다!' 라고 해야 할지 이제는 분명히 정해야 할때가 되었다. 우리에게 '내가 그이 기도 하면서 내가 그가 아니다' 라는 이중성에서 남는것은 처절한 상처와 패배의식뿐이다.